



회원사 순례 21세기 우리 회사전략



이스엠비티(주)

21C 선진농업의 새 희망 위해 임직원 모두 농가현장 방문 기술보급
순수 국내 · 젊은기업, 고객 니즈에 신속 대처 · 저가로 농가이익실현 증대

순 수 국내기업이며 지베렐린도포제의 제 조방법에 대한 특허권 및 식물용수간 주사용액의 용기(이용애충) 실용신안 등록증을 인증 받아 젊은기업으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스엠비티(주)(회장 김인수)는 지난 2001년 설립된 후 2004년 독일 바이엘에서 대전공장을 인수하고 같은 해에 기술연구소를 설립,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되었다. 또 2005년에는 농약품목등록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음으로써 2006년 국립산림과학원 및 경상대학교와 공동으로 소나무재선충 방제약제를 개발하는 등 성장을 거듭해왔다.

뿐만 아니라 식물생명공학 전문 Bio-Technology 회사로써, 작물보호제와 더불어 다

양한 종류의 친환경 농자재를 개발, 공급하고 있으며 21세기 선진농업에 맞는 세계적 농업화학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100여명의 임직원이 불면불휴(不眠不休)의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이와 함께 20여년간 국제 농업무역을 주도해 온 자매회사(주)천우물산을 기반으로 국제적 감각을 갖춘 직원들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엠비티가 필요한 원재를 100% 자체 조달하고 있어 경쟁력 제고는 물론 향후 그 발전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임직원 농가현장 방문 판촉 전 직원의 마케팅화 추진

또한 본사 및 공장, 영업 임직원 대부분은 생

산부터 포장, 판매까지의 공정과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폭넓은 식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농업 제품생산의 선두주자로서 사명감과 정열을 바쳐 일하는 그야말로 참사랑 농업기술인이다.

이에 에스엠비티(주)의 주력 품목인 「천우지베렐린 삼사철」도포제에 대한 인지도 확산을 위해 매년 공장 및 본사 임직원 대부분이 일선 농가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전 직원의 마케팅화가 추진되고 있다. 또 과거 수입완제품인 지베렐린도포제를 개선함으로써 현재는 품질향상 및 자체기술력 노하우를 축적하여 국내기술, 국내시설로 생산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과수농가들에게 양질의 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품질개선에 부단한 노력과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05년도에는 소위 '소나무의 에이즈(AIDS)'라 불리는 소나무재선충이 전국의 53개 시 군 구까지 확산되어 마스크를 통해 일반



인들에게 널리 알려졌을 때 소나무재선충약인 「이웅애충」을 선두로 개발, 보급하는 등 발 빠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소나무를 한번의 간단한 수간주사로서 소나무재선충의 접근을 완전 차단하여 항상 푸르게 지켜주는 울타리의 효자역할을 에스엠비티(주)의 「이웅애충」이 하고 있는 것이다.

에스엠비티(주)의 「이웅애충」은 지난해에 90만 병, 올해 30만병을 산림청에 기 공급하였고, 같은 해 시중에도 모두 40여만병을 공급함으로써 시장수요의 8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효자품목이기도 하다.





고객의 니즈에 신속히 대처 고품질화 · 저가로 농가이익실현 증대

뿐만 아니라 에스엠비티(주)는 올해 야심작인 「빨간풀」액제를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최대의 히트 상품으로 응비할 것임을 자부하고 있다. 또한 「과라손골드」액제의 효과적인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액제시설을 증축하였으며 현재 까지 모두 80여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 잠재력이 적지 않은 회사이기도 하다.

「지베렐린」도포제 등 주요제품에 대하여 매년 가격인하를 실시함으로써 주요 외국기업과의 경쟁, 가격을 안정시켰으며 품질면에서도, 최근 공장의 생산설비를 대폭 확충하여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신기술 및 연구개발 분야에도 투자를 과감히 늘려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일련의 경영혁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을 제고하고 고품질의 제품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에 모든 역량을 발휘, 정진해 나가고자 한다.

전국의 각 도별로 총 8개소를 두어 운영하고 있는 영업지점에서는 올바른 제품사용 정보 제공과 농약의 적기공급 등을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과학영농을 선도하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농약개발을 위해 국내외의 우수한 관련기관, 업계, 단체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에스엠비티(주) 임직원은 긍지와 보람, 사명감을 갖고 선진 농업인의 동반자로서 불철주야 연구와 생산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의 양산에 따라 농약이 필요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지만 필요한 농약은 엄격한 규정 속에 고품질화 하여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농업의 백년대계에 일조하고자 한다. 